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20. 7. 13.(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 • 과장 이명섭, 사무관 홍승희, 이중곤 • ☎ (044) 201-4129, 3325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'21년 3.6만호, '22년 5만호가 예상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'20.7.13) >

- ◆ 가구수는 늘고, 아파트 공급은 절반 줄고... 서울은 계속 아우성
- 1·2인 가구 증가로 서울 가구수는 '18년 328만가구에서 '27년 391만가구로 증가
 - 반면 서울 아파트 공급은 '20년 4.9만호, '21년 2.5만호, '22년(상반기) 0.9만호로 감소

-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 - 민간에서 집계하는 아파트 공급전망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입주물량만을 집계하고 있으며,
 - 올 하반기 분양예정물량 및 후분양 물량,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 임대 공급물량 등은 전망치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입주물량보다 전망치가 과소 추정될 수 있습니다.

- 現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은 5.0만호로 예년('10~'19년, 3.7만호) 대비 35.1% 많습니다.
 - 이에 따라,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연평균 4.6만호로 역시 예년 대비 35.3% 많은 수준으로,
 - '20년 5.3만호, '21년 3.6만호, '22년 5.0만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.

【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】

(단위: 만호)

입주전망	10년평 ('10~'19)	'20 ^e	'21 ^e	'22 ^e	3년평 ('20~'22)	10년평균비
수도권	22.7	25.6	19.7	21.9	22.4	△1.3%
(APT)	(14.3)	(19.3)	(13.4)	(15.6)	(16.1)	12.7%
오피스텔 포함 시	26.4	28.9	23.0	25.2	25.7	△2.6%
서울	6.9	7.9	6.2	7.6	7.2	4.3%
(APT)	(3.4)	(5.3)	(3.6)	(5.0)	(4.6)	35.3%
오피스텔 포함 시	8.3	9.7	8	9.4	9.0	8.4%

- 향후에도, 국민들의 수도권 거주기회 확대요구에 부응하고자 수도권 공급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- 지난 5월에 발표한 「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」에 따라 공공재개발, 용산정비창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울 도심에 총 7만호 등 수도권 전체 25만호 이상의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,
- 「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(7.10)」에 따른 주택공급확대 TF(경제부총리 주재)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종곤 사무관(☎ 044-201-3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